



제주섬에 등지 틀고 사는 이유 관람객 아닌 주인공이 된 그들

'삼라만상' 커뮤니티그룹전 이달 21일부터 갤러리비오름 14인 참여 융복합전·세미나

의사, 주부, 생태전문가, 장인, 무용수, 음악인, 제빵제과사, 신부... 그들이 전시장으로 향했다.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빛깔로 담아낸 제주 풍경,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곳에서 펼쳐진다. 미술인 7인의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것들-제주삼라만상' 릴레이전에 이은 14인의 커뮤니티 그룹전이다.

첨아트문화연구소(대표 김해곤)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진정한 주인공은 지역에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리는 자리다. 전시 주객의 구분 없이 모두가 제주 삼라만상의 구성원임을 나눈다.

출품 작가는 강영란(시인) 고상규·고승희(유기장과 쌀) 김대신(세계유산본부) 김용덕(제과제빵사) 김완병(학예연구원) 김정희(아동문학가) 김재영(소설가) 박연술(무용가) 박이경(주부) 박지옥(신경전문) 성요한(신부) 송인길(국악인) 임길진(주부) 홍성직(외과의사)씨다. 어느덧 제주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자연과 더불어 춤을 추거나 자신을 풀어준 제주의 자연이 아니었다면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를 생각한다는 이들은 섬이라는 등지 속에서 생



커뮤니티 그룹전에 참여하는 박지옥의 '신청바다'.

성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 융·복합 방식의 전시로 보여준다.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도남동 갤러리비오름. 이 기간에 전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참여 작가들이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하는 세미나가 이어지고 김용덕씨가 만든 빵도 맛볼 수 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문의 010-3686-3262.

진선희기자 sunny@halla.com

제주의 맛, 입이 아닌 눈으로 만난다

디자이너 고경란 개인전 제주음식색 체계화 시도 향토음식 선정 컬러 추출



고경란 디자인전은 제주음식색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제주의 맛이 색으로 살아났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고경란 디자인전에 가면 그 빛깔을 만날 수 있다.

'색(色), 눈으로 느끼는 제주의 맛'이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는 고 작가가 제주음식색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향토음식의 색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주 태생인 고 작가는 화산섬 제주의 거친 환경이 이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돌이 많고 토질이 부박해 식량이 부족했고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탓에 생선이나 어패류도 쉽게 상하는 일이 많았다. 이때문에 제주사람들은 자연이 준 식생활 자원을 심본 활용하면서 가볍게 끊이는 맑은국, 냉국이나 물회, 썸 등을 즐겼다.

전시장을 찾으면 바닥에 놓인 100여

개 상자 안에 담긴 갖가지 식재료를 먼저 만나게 된다. 흙과 바다 너머 제주의 또 다른 색이다.

작가는 제주의 대표 향토음식 20개를 선정하고 조리법을 분류해 음식 컬러를 추출하고 시각화했다. 자리물회, 한치물회, 몸국, 돔배고기, 고사리육개장, 전복죽, 오메기떡, 빙떡, 고기국수 등이 섬의 정체성을 품은 색으로 표현됐다.

전시는 이달 21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계속된다. 문의 010-3444-0540.

진선희기자

"재밋섬 매입 절차 부당·계약 불공정"

문화단체 등 도·의회에 탄원

제주지역 4개 단체가 가칭 '한길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주문화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에 18일 탄원서를 냈다.

탐라문화광장협의회,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사)제주관광진흥회, 서귀포예술대학은 이날 공개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탄원'에서 매입 사업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따졌다.

이들 단체는 "제주문화재단이 키즈카페 '재밋섬'과 영화관 '메가박스 제주'가 입점한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1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기금을 투입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제주도민, 문화예술인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기간에 도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입 절차를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선거 다음 날 건물 매입 승인을 제주도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이 전격 처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며 "계약금 1월에 계약해지금을 20억 원으로 정한 일역시 통상적 계약의 상식을 넘어선 불공정 계약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공연·시각예술 참가팀 모집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8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에 참가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모집하고 있다.

2018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은 '일상 속 예술, 생활 속 즐거움'을

주제로 10월 1~13일 전시가 펼쳐지고 10월 20~21일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공연예술(전통예술, 무용, 음악 등)과 시각예술(미술, 서예, 사진 등)로 나뉜다. 모집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f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4)800-9167, 9169.

진선희기자



양형석의 '이면의 공간'.

연갤러리 양형석 도예전 신진·청년작가 기획전시

제주시 연북로 연갤러리의 두번째 신진·청년작가 기획전의 주인공은 양형석 도예가다.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이면(裏面)'을 주제로 개인전을 펼쳐 놓는다.

양 작가는 열매 속의 씨앗, 알 속의 생명들, 땅 속의 개미집, 나무껍질 속의 벌레집 등 보이는 모습 속에 숨겨진 것들에 눈길을 둔다.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숨겨놓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면을 두고 살기 위한 본능이자 삶을 위한 흔적이라고 말한다.

양 작가는 제주대 산업디자인학부를 거쳐 같은 대학 산업대학원에서 공예디자인을 전공(석사)했다. 제주도 미술대전에서 두 차례 대상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문의 010-7102-9951.

진선희기자



최문현의 '자유의 숲'.

맑고 서늘한 물빛 그림

제주수채화협회 정기전

18명 회원 부스전 형식

학창시절을 지나온 이들이라면 미술 수업 시간에 한번쯤 그려봤을 수채화. 친숙한 장르이면서도 작가의 역량에 따라 그 깊이가 확연히 차이난다.

제주수채화협회(회장 김원구)의 열 다섯번째 회원전은 그런 점에서 제주수채화가들의 내공이 펼쳐지는 자리다. 회원 18명이 참여해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차려졌고 부스전 형식으로

전시를 꾸며 개개인의 개성있는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풍경, 인물, 제주 민속 등 소재 역시 다채롭다. 멀리서 보면 사진 같은 작업 등 화지 위에 예고없이 번지자 쉬운 물의 성질을 다스리면서 잡아낸 작품들이 나왔다. 후텁지근한 날씨 탓인지 수채화가 던지는 기운이 더없이 맑고 서늘하다. 제주수채화협회는 이번 정기전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제주도문화진흥원 초청으로 남부위터컬러페스티벌을 연다. 늦가을, 제주에서 또 한번 '물빛 축제'의 장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이달 21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 문의 064)710-7661.

진선희기자

김복신 서귀포서 첫 개인전 곶자왈 나무 등 소재로 작업

서양화가 김복신씨가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김 작가는 제주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미술대전 서양화 우수상·특선 등을 차지했고 매년 3인전인 '다남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왔다. 현재 제주미술협회, 미술동인 집 회원으로 있다.

이번 개인전에는 곶자왈 나무의 이미지를 끌어왔다. 작가는 원시의 숲에



깃든 제주인의 삶을 구현하려 했다.

전시는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760-3573.

진선희기자

문인화 동아리 군방도 전시

부채 그리기 무료 체험 마련

제주 문인화 동아리 군방도(群芳徒)가 한라도서관 갤러리에서 네번째 회원전을 열고 있다.

군방도는 최형양 문인화가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임이다. 군방도 그림은 어

려 화가들이 하나의 화폭에 한 그림씩 어울려서 그린 걸 말한다. 이들은 그동안 단오전 전시 등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배접상태의 합작도, 족자, 두방지에 그린 문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19~20일 오후 2~4시에 문인화 부채 그리기 무료 체험이 마련된다. 문의 064)710-8666.

진선희기자

日本 왕복직항 북알프스 관광

출발일 9/15, 10/6 1인당 1,250,000원

- ▶일본 최고의 관광지 알펜루트
- ▶장엄하고 웅장한 북알프스 산의 대자연을 케이블카, 기차, 버스로 관광하는 세계적인 관광코스
- ▶2450m 무로도코원 정상에서 만년설 체험
- ▶일본의 3대성 나고야성 관광
- ▶온천호텔 2박

제주-나고야-히쿠바-다테야마-히쿠바-나고야-제주

日本 왕복직항 오사카교토나라 관광

출발일 9/15, 10/6

1인당 899,000원 준특급
799,000원 비즈니스급

- ▶드넓은 잔디밭에 사슴을 반목해 놓은 세계문화유산 나라공원 및 교토관광
- ▶세계문화유산 오사카성 관광
- ▶젊은이들의 유행, 상징등의 변화가 신사이바시
- ▶온천욕 체험

제주-나고야-나고야성-오사카-나라공원-오사카성-신사이바시-교토-나고야-제주

논스톱투어 725-7744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제주드림여행사 721-7500
www.jdkorea.net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모아투어 748-2002
www.moatour.kr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여행정보서비스 746-6900
www.7466900.com